

# 후기산업사회의 오피스 변화에 관한 연구

-복합기능형 오피스-

A Study of Future Office on Postindustrial Society

-Hybrid Office-

민 찬 흥\* Min, Chan-Hong

## Abstract

Recently, much attention is paid on the office design because the real world of work has undergone substantial changes, in both spatial and temporal aspects, due to the introduction of data processing technologies and new types of production.

Today's renewed objectives of office are to define new physical space for work, to deal with economic and organizational changes. In the period of information, the purpose of an office is to improve the productivity for employers and to obtain more intellectual resources by providing employees the comfort and vitality. Today's intellectual resources are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in the modern business.

The Hybrid office, as an alternative in order to correspond the rapid changes, is proposed to give the space for satisfying the basic desires of a human being—eating, resting and working.

Accompanying with flexibility and comfortability, this office should include the space for personal purpose and the space for social purpose.

Applying the concept of comfort like at home leads to release a worker's stress from the society of information. The future office which is to enhance the quality of culture by integrating individual, domestic and social life should communicate efficiency, movement, energy, transformation.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서비스분야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E.E.C.(구주경제 공동체)에 따르면 2000년에는 세계의 약 70%의 사무노동자가 전세계의 사무실에 고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sup>1)</sup> White color의 수가 Blue color의 수보다 이처럼 월등하게 증가한 오늘날 선진국 대부분의 디자인 문화는 오피스의 주제를 연구하는 것이다. 오피스 디자인은 그 시대의 문화와 업무의 구체적인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그 가치가 있다. 오랫동안 사무실은 복도를 따라 구획되어 배치된 폐쇄형(Close planning)과 통제를 위해 한눈에 모든 것을 볼수 있도록 넓은 공간에 책상들을 배치한 개방형(Open planning)의 두 가지 상반된 사무공간의 설계방식 사이에서 만족한 해결을 보지 못한 채 논의되어 왔다. 이런 사무실디자인이 최근에 와서 새로운 주의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은 정보처리 기술과 새로운 형태의 생산방법에 기인하여 공간과 시간 양쪽이 실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일의 세계의 현실 때문이다. 정보가 유력한 자원이 되어 정보의 처리와 가공에 의한 가치의 생산을 중심으로 사회와 경제가 발전하는 정보화시대인 오늘날의 노동은 단순에서 복잡한 기능들로 빠르게 진화되어, 일하는 동안 개개 직원들의 편안한 활동 가운데 집중력과 직원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특히 적합한 사무환경이 요구되고 있다.

정보를 다루는 컴퓨터의 발달은 전통적인 사무실의 모습을 서서히 변화시켰으며 노동의 행위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수정되어졌다. 그러나 이태리의 건축가인 안드레아 브란지(Andrea Branzi)의 지적처럼, 일의 세계의 변화의 신속성,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사무스타일로 인해 그 의미와 내용의 실질적 재형성이 요구되어 지는 오피스는 실제로 아직도 선입견, 표준, 제한성 등의 상투적인 경직 속에 놓여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새로운 사무공간의 목표는 일을 위하여 조직적이며 경제적인 변화에 대처가능한 새로운 물리적 공간이라 말할 수 있다. 즉 어떠한 변화에도 빠르게 대처가 가능한 융통성있는 공간에 가구는 가구 또는 도구로 사용되며, 복잡하지만 다루기 쉽고, 편안하고 안정된 작업활동을 위해서 작업방법의 특성인 효율과 활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해결책을 공급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논문은 직원의 창의성 그리고 생산증진을 촉진하는 새로운 사무환경의 제시에 그 목적이 있으며, 사무실 공간의 적극적 활용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사무원에게 인간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그 뜻을 두고 있다.

## II. 후기산업사회의 오피스

### 1. 오피스의 개념

정보화사회에 있어 정보기술의 보급은 노동내용의 변화와 그 체계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과거 산업사회에 있어서 노동은 형태와 무게를 가진 재료를 가공 생산한다는 의미였으나 이제 이 가공할 수 있는

\*이사, 동덕여대 산업디자인학과 조교수

1) Luigi V. Mangano, Nuove Strategie Nell' Ufficio, Interni '93

재료는 정보라는 허구의 물질로 변환되었다. 이것은 새로운 가능성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구속이기도 하다. 이 비물질적인 재료 때문에 오피스는 종래의 노동개념에 따른 제약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를 요구 받게 되었다.

컴퓨터에 의한 정보의 처리 및 전달은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고 시간과 공간을 절약하게 했으며, 더 나아가 컴퓨터의 소형화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게 함으로서 몇몇 사람들에게 사무실의 장소적 소멸을 예견하게도 했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수단이 모든 업무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오피스의 장소적 존재는 사라지기 어렵다. 인간은 공생하는 동물로 집합의 장소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일함으로써 만나고 만남으로 일하게 된다. 오피스는 이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성된 환경이므로 개인의 집결력을 발휘할 영역, 만남을 위한 장소, 정보처리를 위한 장소, 커뮤니케이션 매개에 의해 연결되는 상호관계의 장소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비록 비물질적인 정보를 이용하지만 오피스는 물질적이어서 근본적인 역할이 있으므로 오피스를 설계하고 구성하는데에는 그 공간의 사용자인 인간의 내면 욕구를 기저로 하는 오피스의 개념요소들인 영역, 만남, 지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1)영역 : 사람은 대중 속에서도 자신만의 영역을 만든다. 즉 자신을 확실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려는 소유욕을 갖고 있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인간은 집중하며 생각하고 일하고 휴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프라이버시는 주체성의 진화로 집단생활의 기초가 되는 요소(자기보존, 아이덴티티의 확립, 사회와의 관계 등)의 일부로 관계해음으로서 프라이버시의 결핍으로 인한 불균형은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준다. 인간의 영역은 크기나 기능 뿐만 아니라 시간적 차원에 따라 다양하다. 시간의 간격에 따라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일 수도 있으며 구체적, 상징적으로도 된다. 인간과 물체 그리고 물질적 경계를 넘어 사회계층이나 지위의 표현에 관련되기도 한다.

개인간의 영역의 침해를 행동을 규제하는 규범이 제도화 되어 있으므로 이해받기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침범을 미리 준비하는 방어형태로 상징적인 표식을 이용한다. 물리적 방법으로 벽, 문, 칸막이, 커튼 등을 설치하거나 개인의 몸품인 물컵, 가방, 신문, 담배 등을 테이블 위에 놓아둠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표시하거나 또는 표정, 행동 등의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영역의 주인임을 표시하기도 한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구프만(A. Goffman)<sup>2)</sup>의 관찰에 의하면 인간의 특질은 자신의 활동영역을 구별하여 자기의 사회적 역할을 분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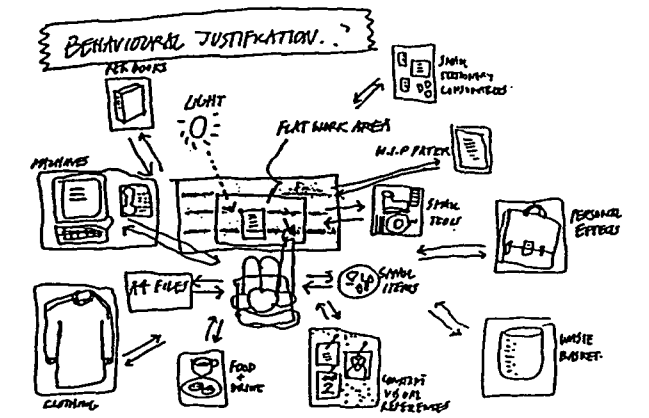
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중복되는 역할과 거기서 파생되는 충돌과 스트레스의 조절에 사회적 공생의 매커니즘을 적용시켜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생태학자인 알트만(A. Altman)<sup>2)</sup>은 일차적 영역, 이차적영역, 공공영역의 구별을 제안하고 있는데 일차적영역은 개인적인 일상생활을 다루며 아이덴티티의 확립과 방어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가정), 이차적영역은 생계, 생존을 목적으로 다른 환경에 거주하는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사무공간/만남의 공간 등)

공공영역은 인습적인 규범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 영역을 의미한다. 이 세계의 레벨이 공존하는 환경인 오피스의 긍정적 의미는 개인영역의 공간의 질을 보장하는 의미이며, 그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 투쟁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하고 안정된 작업을 위해서 어떤 영역의 측면도 등한시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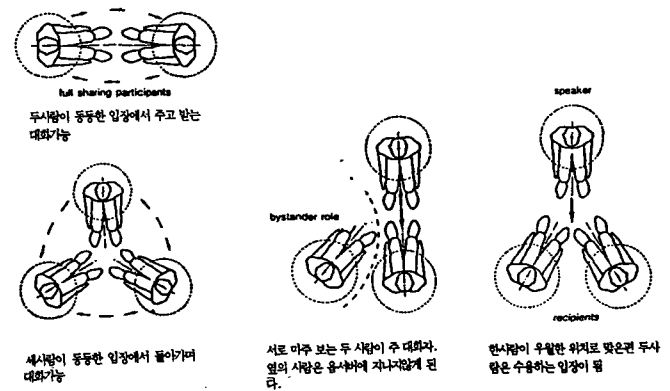
2)만남 :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화, 상호공동체의 전제인 만남은 개인과 집단의 창조성의 표현이기도 하며 공격과 긴장의 두려움의 요소를 포함한다. 이것은 미팅의 두개의 다른 요소 사이의 만남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오피스에는 모임, 회의, 협의, 토의, 상담 등의 동료나 외부인과의 개인적, 공적인 가법고 무거운 만남이 항상 이루어진다.

정보기술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은 Fax, 화상전화, 화상회의 등, 기기를 사용하여 직접적인 대면없이도 서로의 의사를 전달 가능케 한다. 그러나 그것은 도구로서의 기계의 편리한 이용일 뿐이다. 우리 주변에서 앨빈 토플러가 규정했던 '가택근무제'가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상 이 체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기술의 획기적인 발달에 의해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직접적인 대면에서 얻어지는 감정적 교류는 만들어내기 힘든 것이다.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환경 속에서 부드러움과 이해의 분위기가 이루어짐을 볼 때 오피스에서 만남의 장소에 대한 배려는 대단히 중요하다. 또 사람들에게 있어 오감 중 특히 시각이 주도권이 있어 환경의 모양이나 분위기, 가구의 배치 등이 개인의 감정이나 모임의 성격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람이 취하는 중요한 사인 또는 관습은 그 자신과 다른 사람간의 위치한 거리이다. 이 사회적 거리는 자연히 개성과 환경요인에 따르며 공간에서 작업인의 상호 관계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왜 만나고 미팅으로 무엇을 성취하기를 기대하는가? 때로 정보를 교환하고 의논하고 결정하고 문제를 풀어나간다. 가장 효율적인 만남의 환경은 상호 관계를 원활하게 촉진하고 강화시키는 곳이다.

3)지위: 사회성에 기반을 두는 모든 문화에 있어 역할의 구별과 서열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이상, 지위에 대한 정의도 오피스 개념에서



<그림1> 행위의 정당화? 1985년 Jeff Hollington이 미국의 가구 회사인 Herman Miller사에 제시한 새로운 컨셉의 오피스를 위한 아이디어 스케치. 개인의 사무영역 안에서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비품들이 표현되어 있다.



<그림2> 좌석의 배치에 따른 대화자 입장의 변화<sup>3)</sup>

2) Isao Hosoe, Play Office, GC Press '92

3) Isao Hosoe, Play Office, GC Press '92

제외될 수 없는 요소이다. 지위는 커뮤니케이션이 한 형태이다. 사회적 계급제도에 위치의 주장으로서 불안정한 요소일수도 있는 모호함을 피하기위하여 과시의 다른 정도의 표시로 대신하는 전달의 한 방법인 것이다. 사무실에서 지위를 부정할 필요도 없으며 또 과장할 필요도 없다. 1960년대 개방형 오피스 (Open planing Office) 시대에 여러가지 지위의 상징을 없애려는 이론적인 생각을 한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프라이버시의 결여와 단조로움 때문에 성취도 못했다. 지위의 표시는 건물속에서 사무실의 위치, 넓이, 가구의 크기와 질, 프라이버시의 범위, 방문객과 전화를 받아 관리하는 비서의 존재, 소속 환경에의 재량권 등이다. 지위의 상징은 그것을 득한자에게는 강력한 무기이고 다른이에게는 자극이 된다. 그러나 아이덴티티와 지위가 합해지지 못했다던가 지위의 사용방법이 고정관념화된 것들이 역설을 나온 주원인이 되고있다. 역사적으로 계급이 없었던 때는 없었으며 계급 사회에서 지위는 목표를 위한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표현이 최고 지향적이어서 추상적인 기호군으로 변화되어 더 세련된 형을 가진 문화와 사회조직의 폭을 넓히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지위가 세련된 상징에 지나지 않는 후기산업사회에서의 지위, 상징의 표식화는 상투적인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으며, '지위(Position)가 더 이상 자리(Place)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에 의거하여 지위는 양보다 질적인 존재로서 오피스의 개념에 존재하여야 한다.

## 2. 후기산업사회의 오피스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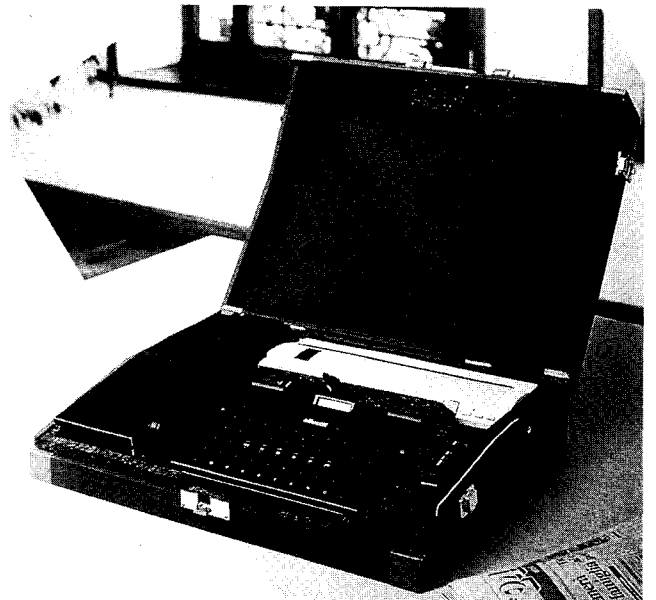
### 1) 오피스의 가정화

작업환경의 창조에 도입되는 흥미있는 요소로서 인간의 생태학적 요구를 관찰해 볼 수 있다. 생태학적 배경에서 강조되는 가치는 인간의 안락의 탐색에 대한 이해이며 그 안락은 가정적인 개념의 도입으로 얻어질 수 있다. 이 결과는 오피스에 가정적인 개념의 도입과 함께 작업 기간 동안 충분한 만족을 보장하는 환경과의 균형이 중요하며 일하는 사람의 가치관과 기대감에 부응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은 자기실현의 장으로서 인간적이어야 하고 그래서 더 안락해야 하며 흔히 사회적, 문화적인 요구를 소홀히하는 양상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오피스 문화는 가정적 환경과 업무/생산적 환경사이의 엄격한 분리의 정적을 추구해 왔다. 사무실의 가정적 의미는 적어도 이 편파적인 단절의 재형성의 경향이며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일률적이며 차고 단조로운 기계적 사무환경에 대처하는 자극히 개인적인 공간 창조의 경향이다. 그러므로 가정적인 것은 개인영역에 적합한 필요성에서 재평가된다. 이는 스트레스없는 공간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감을 느끼게 하며 안녕의 상태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개인 영역의 한계는 살내의 모든 건축적 요소나 가구의 배치에 의해서 얻어지는 가정적 안락감 내지는 휴식감 만이 아니고 전통적인 인식과 감각의 촉진으로서 가정적 영역에 속하는 상징이나 개념의 채용으로 부터이다. 개인 영역의 존중은 사무실이 존속되기 위해 유일한 현실적 동기를 남아있는 물리적 '만남'대신에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시대라는 현실로 참작되어야 한다.

### 2) 사무의 방랑화

새로운 테크놀러지와 함께 노동은 사무실의 공간적인 구속에서 벗어나려하고 있다. 이제 기차에서나 비행기에서 Laptop이나 노트북 컴퓨터를 놓고 작업하는 비즈니스맨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사무를 위해 존재하기 시작한 컴퓨터, Fax, 등의 기기는 기술의 혁신으로 휴대와 사용에 편리하도록 점점 소형화되고 다기능으로 고안되고 있으며, 이들의 존재는 오피스의 작업형태를 변화시켜 사무원들을 사무실로 떠나 방랑하도록 만들었다. 포터를 컴퓨터, 무선 휴대폰, 포켓 텔레팩스, 등의 사무를 위한 제품의 출현은 사무실의 밖에서도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일 할수있도록 하였으며 일과 만남의 연속체제 속에서 낭비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이고 업무의 효율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가내근무체제'도 출현, 고용인이 사무실과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가정에서 일할 수 있는 홈 오피스(Home Office)의 형태도 생겨났다. 또 지구촌(Grobal villiage)화로 인한 잦은 비즈니스 출장에 대비하여 컴퓨터, 팩스와 전화를 하나의 가방에 넣은 일종의 포터블 오피스인 인텔리젠트 백(Intelligent Bag)이 출현되었으며, 호텔에서는 투숙한 비즈니스맨을 위하여 각 객실에 컴퓨터, 팩스, 프린터 등의 사무기기를 비치하고 사무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정보화사회에서 테크놀러지는 사무가 장소를 의미하는 사무실에서만 진행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당신이 있는 곳이 사무실'(Your office is where you are), '사무실 없는 사무실'(Office without Office)이라는 개념을 성립시켰으며 언제 어디서나 일 할수 있는 가능성을 뜻하는 분포 오피스 (Distributed Office)라는 말도 생겨났다. 이런 사무에 대한 새로운 개념은 공적인 만남의 장소, 즉 모임이나 상담을 위해 필요한 크기의 장소와 비밀보장을 갖춘 장소가 요구되는 불편함과 소속감의 상실 및 자신만의 공인된 영역을 소유하고자하는 욕구 충족의 어려움, 그리고 항상 사무와 공존하기 때문에 사생활과 일의 균형을 잃기 쉬워 가정과 사회와 기업사이에 보호받기 어려운 점들을 감안한다면 교통난과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에게 적합한 작업방법임에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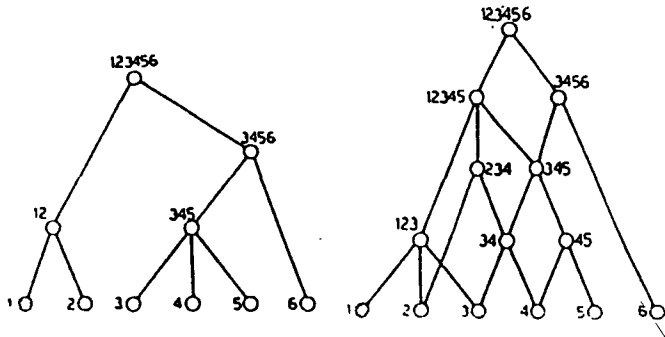
(그림3) 이태리 올리베티사가 내놓은 비즈니스맨을 위한 Intelligent Bag. 휴대용 컴퓨터인 'Notebook'과 핸드폰, 팩스가 들어 있다.

### 3) 사무원의 방랑화

전통적 사무실의 lay out은 계급적 구조 체계의 딱딱함에 기초한다. 종이에 쓰여진 정보들이 인접한 책상 위를 돌아다니다가 누군가의 책상에서 시간을 끌기도 하며 계급적 피라미드의 정해진 경로를 따라 상부로 올라간다.

또한 각기 여러 부서에 속한 직원들이 자주 움직이고 여러 업무에 동시에 속해 있으며 작업과정도 일률적이지 못해 업무 파악도 어려운 사무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한 효율적 대책의 하나는 항상 같은 부서인원이 일의 주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각 전문요원을 모아 팀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일의 성격이나 주제별로 경험 및 전문적 지식이 있는 직원들을 모아 팀을 만들고 팀별로 활동하며 업무 수행 완료와 함께 그 팀은 해산되고 다시 다른 목표를 위한 효율적인 새로운 팀이 조성된다. 즉 사무원은 일의 주제에 따라 사무실에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작업하는 또 하나의 방랑객이 되는 것이다. 캘빈 파버(Calvin Pava)는 상부로의 여러 통로가 있고 지정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적합한 인원으로 구성된 활동적배치(activity

setting)라고 불리는 동적연합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이런 종류의 조직 구성을 ‘그물 모양’(Reticular)이라고 불렀다.<sup>4)</sup>이런 작은조직들은 사람들을 조정하는 어려움을 감소시키며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면서 최종적 작업 목표를 알고 서로간의 일을 파악하고 있어 업무의 진행이 순조로운 이점이 있다.



(그림4) 그물모양구조(Reticular System)

#### 4) 권장되고있는 사무유형

몇년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arvard Business Review)지에서는 인간의 만남과 개인적 영역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적 배치(Activity setting)와 함께 홈페이지(Homebase)를 기초로 하여, 이들의 활발한 연합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고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새로운 오피스의 유형을 선보였다.<sup>5)</sup>

활동적 배치(Activity setting)는 ‘지위(position)가 더 이상 자리(place)를 의미하지 않는다’, ‘당신의 사무실은 당신이 있는곳’(Your Office is where you are)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무실 개념에 기초하여 그때 그때의 업무의 성격이나 필요에 따라 인원을 구성하여 헌담을 이루어 작업하는 체제이다. 어떠한 작업이 한 공간에서만 수행될 수 있게끔 모든 도구를 갖추고 있는, 지극히 전문화된 워크스테이션(Workstation)과는 대조적으로 모든 활동적 작업장에서는 모든 종류의 작업이 같은 종류의 도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한된 범위 만의 작업을 할 수 있다. 어떠한 작업은 협력이 필요한 반면 어떤 것들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진다. 종종 특별한 기구가 요구되는 반면 어떤 경우에는 연필과 종이 같은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 활동적 배치는 최고의 융통성에 기초한 것으로 사무원들에게 그들의 업무가 바뀔 때 한 특별한 활동적 작업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김으로서 매번 새로운 흥미를 유발시키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일시적인 특별 부서를 형성하기 위해 사무실 내에서 이동을 유도한다. 도시에 여러사람이 모두를 위한 하나의 책상에서 같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가의 사무장비에 대해 연속적인 최대한의 활용도 보장된다.

홈베이스(Homebase)는 활동적 배치공간에서 각 개인을 위해 제공되는, 안정감과 소속감을 주는 조그만 상설 개인공간의 제안이다. 일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도구(전화, 컴퓨터, 파일 캐비닛 등)를 갖춘 작은 사무 공간들로서 사무원에게 개인적 영역을 주어 아이디어의 구상과 함께 일상적인 일과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만일 직원들이 사적인 물건이나 특별한 장비를 소유한다면 그들은 기본이외의 더 이상의 공간과 조용한 분위기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직원들은 온종일 그들의 자리에 있게 하는 워크스테이션과는 달리 홈페이지 구조에서는 단제직업, 회의 그리고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자극해야 하기 때문에 책상이나 이동성있는 파티션을 이용하여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며, 활동적 배치 환경의 한 가운데에 집합공간을 두고 홈페이지 주위에 공유의 전문기기를 배치하여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이성적이다. 이 새로운 형태의 사무실의 건축적 의미와 역사적 뿌리를 찾는다면 다양한 개인 공간이 집안의 아트리움을 향해 배치되어 있는 옛 로마시대의 주택이나 천막이 중앙의 공간을 통해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는 유목민의 아영지나 부락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5) 천막이 중앙의 공간을 향해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는 유목민의 부락구조. Mossi village in Burkina Faso 오늘날에 권유되고 있는 오피스 구조와 유사하다.

### Ⅲ. 복합기능의 오피스(Hybrid Office)

후기산업사의 분명한 도래와 같이 서서비스 사회의 도래는 생산분야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철학적, 사회 문화적 변혁의 침체와 진보의 문제의 핵심을 차지하면서 발전하였다. 오늘의 문화적 혁명은, 사회 통합의 광범위한 정책이 실현되는 공장이 아닌, 오피스에서라는 사실과 국제적 거주 환경의 새 모델의 형성 과정이라는 사실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생산적 노동의 본질은 오늘날 정보라는 변형물인 것을 주지 해야 한다.

이 정보화로 인해 발생된 오피스의 새로운 문화적 현상과 함께 사무실은 건물안에 존재하는 도시같은 오피스와 컴퓨터안에 존재하는 사실상의 오피스(Virtual Office)가 공존하면서 동시에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사무실 밖으로 확산된 분포오피스는 사무실 안으로 팽창된 도시같은 사무실과 공존한다. 이런 양 경향들은 새로운 사무 행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품화도 제시한다. 포터블 컴퓨터, 무선 휴대폰, 포켓텔레팩스, 인터랙티브, 전자메모 등의 제품은 길에서, 비행기에서, 혹은 가정에서 일하기 위해 존재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지해야 할 것은 컴퓨터내의 사실상의 사무실(Virtual office)이 아닌 건물내에 있는 도시 환경같은 사무실이다. 기술의 혁신으로 사실상의 사무실(Virtual Office)의 기능이 날로 발달되어 가는 것과 함께 업무의 행태도 그에 따라 신속히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인간의 사무환경은 아직 그들의 진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보와 인재의 교류가 행해지는 오피스에서 앞으로 필요한 것은 기술적 혁신에 발맞춘 사무원들의 거주환경의 변화이며, 그 변화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

4) Renata Sias, Ambiente Ufficio, Domus Academy '92

5) Renata Sias, Nomadism In the Office, Domus Academy '92

간위주로 이루어져야하며 작업을 위한 융통성과 함께 사무실 안밖의 모든 작업들이 계급적 수직결정이 아닌 협조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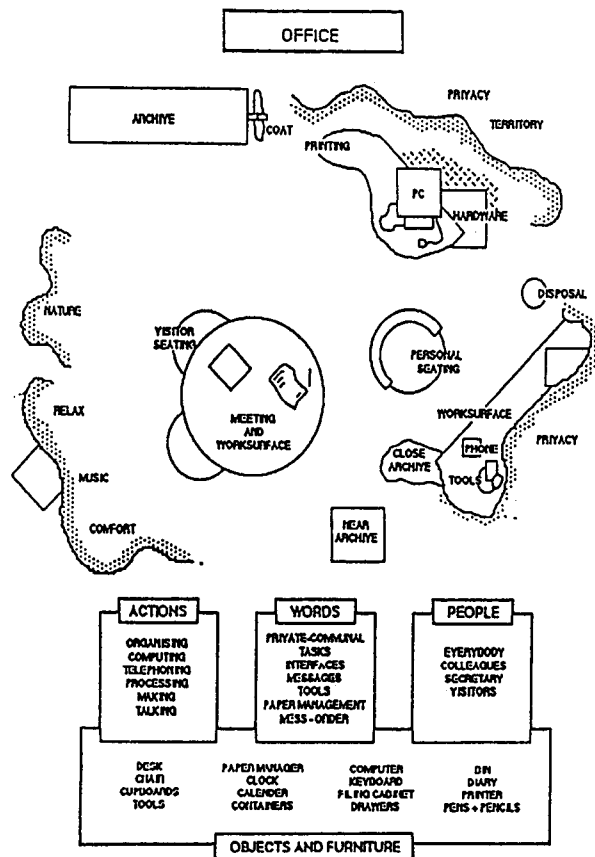
복잡한 기술과 급변하는 정보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작업자의 능력과 안락을 위한 거주지인 사무실은, 인간의 물리적 감성적 욕구충족과 더불어 그 자체의 구조 및 작업공간을 다양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융통성있는 공간으로 변형시켜야 한다. 일하고, 만나고, 토의하고, 휴식하며, 먹고, 자고... 등의 인간의 일상적인 행위의 편안함과 더불어 창조를 조장하며, 동료와의 긴밀한 유대와 협조를 위하여 활발하고 신속한 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간조성을 촉진하는, 새로운 모델의 '복합기능형 오피스'(Hybrid Office)를 제안한다. 이는 사회와 가정, 기술과 문화, 작업과 휴식이 공존하는 특별하고, 고도의 기능적 복잡성과 광범위한 인간 상호의 질을 혼합한 다기능형 오피스로서 21C를 지향하는 미래형 사무실의 한 유형으로 요청되어진다. 이 새로운 물리적 공간은, 날로 축소되어지며 변환되는 개인작업공간과 날로 팽창되며 전문화 되어가는 그룹작업공간으로 형성되며 이들의 가장 의미있는 기능 및 가구들을 발췌하여 그 공간을 설명 제시하기로 한다.

### 1) 개인업무공간(Individual work)

개인업무는 오늘날 평범한 사무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책상 위에는 전자 터미널, 전화, 파일과 그 밖의 여러가지 개인적 용품들로 비치된다.

이 책상 비품은 실제상 오피스의 넓은 면적을 점유하므로 앞으로는 업무를 위해 공간을 덜 차지하는(수직적 배치같은) 책상 디자인이 필요하며 이것은 더 발전된 다른 개인 기능들과 함께 통합되어야 한다. 책상은

- 작은 책상(컴퓨터의 사용으로 작업면이 축소됨)
- 작업의자



(그림6) 개인 업무공간

- 개인용 파일시스템
- 전화, 컴퓨터, 비디오, Fax
- 휴식용 의자(수면도 가능)
- 방문자용 의자
- 오디오, 냉장고
- 작은 테이블(식탁 겸용 : 2인용)로 구성된다.

소형화된 책상 주변에 서어비스와 안락의 또 다른 기능을 가진, 확장 가능하며 융통성있는 구조의 프로덕트 시스템(product system)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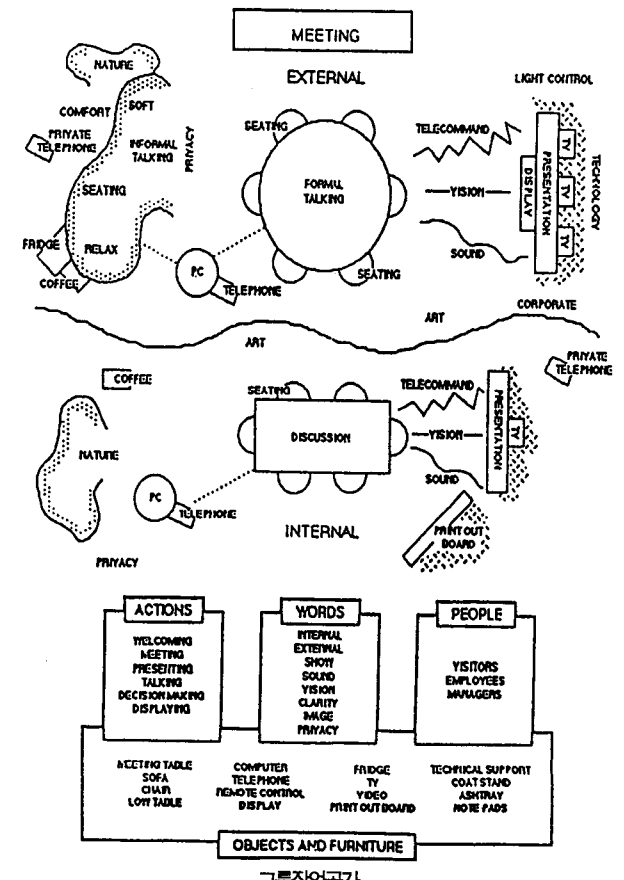
### 2) 그룹 작업 공간(Collective work)

프로젝트(project)를 위한 작업이 팀에 의해 이루어지는 장소로 구성된다. 오늘날 모든 팀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형 테이블과 일반비품(후판, 전화, 냉장고등)에 의해 점유되는 장소이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비활용 공간으로 남는 것에 대한 공간처리 활용방안이 요구되므로 전문화된 프로덕트 시스템의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룹작업공간의 필요한 최소한의 집기는 다음과 같다.

- 확장 가능한 대형테이블(6~12인용)
- 부분적 또는 전부 닫을 수 있는 개방공간에 위치
- 그룹을 위한 전체적 집중공간
- 개인 작업도 가능
- 그룹내의 커뮤니케이션(프로젝터, 전자후판)과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전화, 팩스, 비디오)를 위한 구조의 통합
- 프로젝트 파일
- 안락과 휴식을 위한 설비의 설치(냉장고, 예술품, 식물, 흔들의자 등)

그룹, 기업, 장소의 통합된 의미가 표현된 대단히 복잡한 프로덕트 시스템이 요구된다.

후기산업사회의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오피스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그룹작업공간

경영자에게는 생산증진을 꾀하고 고용자에게는 안락과 활력을 보급하여 지적 자원을 많이 얻어내는 것이다. 오늘날의 지적 자원은 현대 비즈니스 발달을 위한 기본이다. 하이브리드 오피스의 제안은 이 시대의 신속한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인간적 측면에서의 대응안이다.

인간의 기본 욕구인 먹고 쉬고 일 할수 있는 공간, 이것은 최상의 융통성과 안락성을 기인한다. 개인의 영역과 만남의 영역을 구분하면서 동시에 서로를 포함하도록 사무실 공간 활용을 강화시켰으며, 가정의 편안함과 휴식의 개념을 도입시킴으로서 빠르게 변화해가는 정보 사회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준다. 개인과 사회와 가정의 만남으로 그 문화의 질을 높힐 내일의 오피스는 능률, 유동, 에너지, 변형, 원동력이 전달되어야만 한다.

#### IV. 복합기능 오피스의 사례

##### 1) 연구사례 1 : -DINOSAUR VITALE DEL UFFICIO- Yuji Ishi, Japan

오피스의 융통성과 안락성을 기조로하여 공간의 자유로운 활용에 주안점을 둔 디자인으로 모든 가구가 개별적으로 구성되며 유연성있는 파티션의 움직임에 의해 변화되는 사무공간을 창조한다.

###### • 상황설정

미래에 있어서 컴퓨터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 더욱 발전할 것이며, 컴퓨터와 전화가 통합되며 무선이며 더 작고 컴팩트해질 것이다. 데이터 베이스의 창안 및 서류가 책상에서 사라질 것이며 약간의 개인 파일로 일할 것이다.

###### • 주요 컨셉

1. 개인 업무에 적합한 환경(영역, 프라이버시, 시각, 위치, 조명 등)
2. 업무무를 위해 동료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보장
3. 주변공간의 융통성 있는 배치(형태, 크기)
4. 기기를 위한 에너지와 정보 공급의 용이

###### • 공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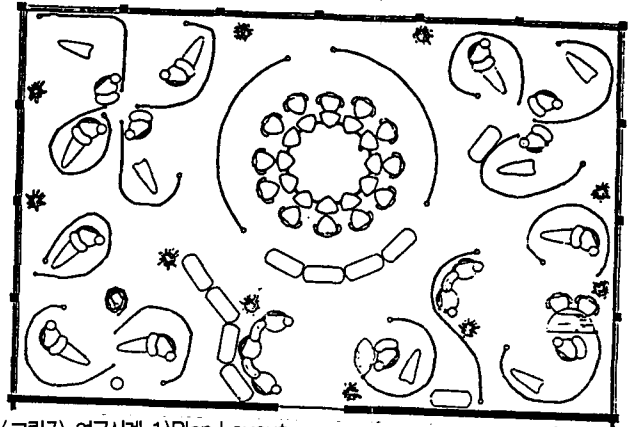
1. 개인 공간 : 작은 책상과 휴식용 보조의자가 딸린 작업의 자가 구비된 가장기본적 개인공간. 플렉시블한 파티션으로 개폐조작에 의해 이루어진다.
2. 동료와의 만남의 공간 : 파티션의 고정부위에 모여 작은 미팅 가능
3. 외부인이나 다른 동료들과의 만남의 공간 : 회의용 테이블 및 회의용 집기 및 비품의 설치

###### • 주요 가구

1. 파티션 : 파도 모양의 높낮이가 다른 곡선형의 유연성 및 융통성이 있는 제품으로 움직여 개폐조작 가능.  
(개인 공간, 동료와의 미팅공간의 창조)
2. 작업 의자 : 컴퓨터의 사용으로 소형화된 작업면이 측면에 부착된 작업의자와 보조의자로 구성. 보조의자를 작업의자에 붙여 휴식용 의자로 사용. (변화 있는 좌석 사용)
3. 회의용 테이블 : 공간 활용을 위해 조립해체 및 운반이 용이. 비사용시에는 테이블 천판을 아래로 접을 수 있으며, 해체하여 창고에 비치했다가 필요시에 필요숫자 만큼 조립해서 설치사용가능. (팀작업을 위한 공간창조)

##### 2) 연구사례 2 : -COLLONNA CERNIERA- Woo-jin Lee, Korea

전체적 공간의 활용에 주안점을 두고, 에너지 공급 및 조명, 사무기기 등의 모든 설비를 포함한 일체식 가구로서 일률적인 배치와 함께 개폐 조작에 의한 융통성이 있는 공간 활용을 조성한다.



(그림7) 연구사례 1) Plan Layout



(그림8) 연구사례 1) Study Model

###### • 주요컨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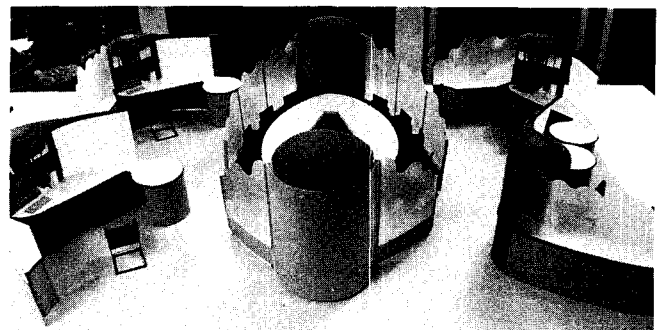
1. 손목을 마주붙인 두 손의 움직임과 같은 형태
2. 에너지 공급원과 정보장치 및 집기 등을 내장시킨 하나의 원기등을 중심으로 양옆에 달린 두개의 날개를 개폐 조작하여 작업공간을 형성한다. 열려있을 때는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이며 닫혀 있을 때는 프라이버시의 의미로 간주한다.

###### • 공간분류

1. 개인 공간 : 일종의 워크스테이션으로 사용시에는 열어서 사용하며 퇴근이나 출장시에 닫아둬서 프라이버시도 지키며 공간의 사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
2. 만남의 공간 : 두개의 원기등을 사용, 한쪽은 스크린, 비디오, 오디오 등을 내장시키고 다른 한쪽은 컴퓨터, 프로젝터 등의 기기를 내장시켜 서로 마주 보도록 위치하여 사용한다.

###### • 주요가구

1. 워크스테이션 : 원기등을 중심으로 양날개의 책상, 파일 캐비닛, 소형 미팅테이블과 시각차단을 위한 반투명 재질의 상부파티션 부착, 전체가 한조의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2. 회의용 테이블 : 보트(boat)형태, 한쪽끝을 중심으로 개폐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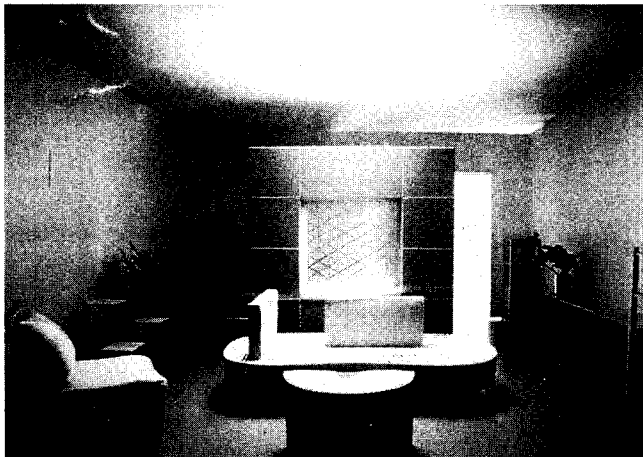
(그림9) 연구사례 2) Study Model : 중앙부 만남의 공간 주변에 개인 공간들이 위치하고 있다.

도록 제작, 미팅의 종류나 인원수 또는 진행방법에 따라 형태를 변형시켜 사용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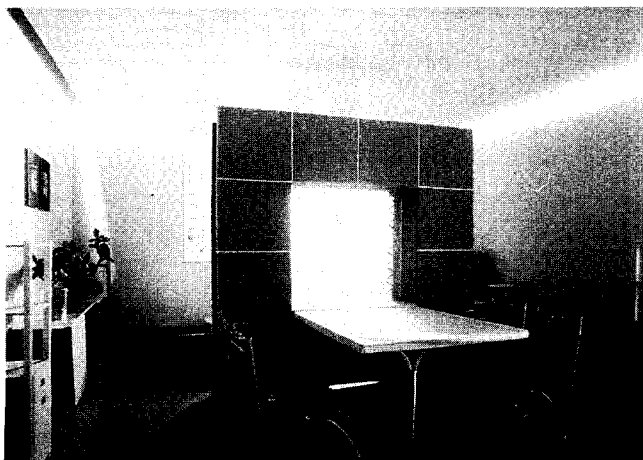
### 3) 연구사례 3 : -UFFICIOTEL- Chan-hong Min, Korea

비즈니스맨들의 잦은 국내의 출장에 따른 오피스의 필요, 즉 비즈니스에 필요한 만남의 장소가 필요해진다. 각호텔의 비즈니스클럽을 주로 사용하나 회의실 예약 등의 번거로움과 비밀보장이 우려되기도 한다. 여기에서 착안한 호텔과 오피스의 복합형태.

- 주요컨셉
  1. 옛 한국의 일종의 오피스인 사랑방을 컨셉으로 함
  2. 모든 기기를 내장시킨 대형 캐비닛을 중앙에 배치하여 공간을 분류하며, 캐비닛을 앞뒤로 밀어 움직여 각 공간을 확장 사용한다.
- 공간분류
  1. 개인 공간 : 침대, 테이블, 휴식용 의자 등으로 구성·테이블이나 캐비닛 중앙부의 책상에서 작업가능.
  2. 만남의 공간 : 캐비닛의 중앙부에 부착된 미팅테이블을 사용, 업무용 미팅이 가능해진다.
- 주요가구
  1. 캐비닛 : 냉장고, 오디오, 비디오 및 업무에 필요한 기기(프로젝터, 프린터, Fax. 등)를 내장하고 앞뒤 양면으로 개폐가능한 가구로서 중심부를 뚫어 시각적 중량감을 줄이고 그 부분을 이용, 확장가능한 테이블용 천판(4~6인용)을 설치 한다.
  2. 침대 : 기존의 직사각형태에서 벗어난 모양이며, 쿠션의 변화있는 사용이 가능 하다.



<그림 10> 연구사례 3)개인공간의 Study Model : 중앙 캐비닛 상부에 조명으로 천정부 위를 밝힌다.중앙부로 분류기 집중 유도 가능.



<그림 11> 연구사례 3)만남의 공간의 Study Model : 천정들레에 소팻을 이용한 간접조명으로 부드러운 전반조명 연출가능.

## V. 결론

후기 산업사회에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새로운 모델의 사무공간은 다음과 같은 의식의 변화에서 구현될수 있다.

첫째 : 공간 활용의 강화이다.

작은 공간이라도 잘 유용될 때 넓어지며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효율성 있는 공간의 사용은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날로 상승되는 부동산의 가격과 사무행태(사무실과 사무원의 방랑화)의 변화는 공간의 경제성을 갖는 효율성 있는 배치를 요구한다.

자유시간제 근무, 거의 출퇴근시간에만 사용되는 세일즈맨의 사무공간들,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대,소 회의실 그리고 활동적 배치(Activity Setting)에 따른 집합 사무공간의 재배치 등은 3차 산업사회에 있어 발생하는 사무 공간의 문제들로서 이들은 조립과 해체가 용이하고 쉽게 옮길 수 있어 재배치 및 변형이 가능하며 작업과정 또는 사무 행위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태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가진 실용적 융통성의 가구의 사용으로 해소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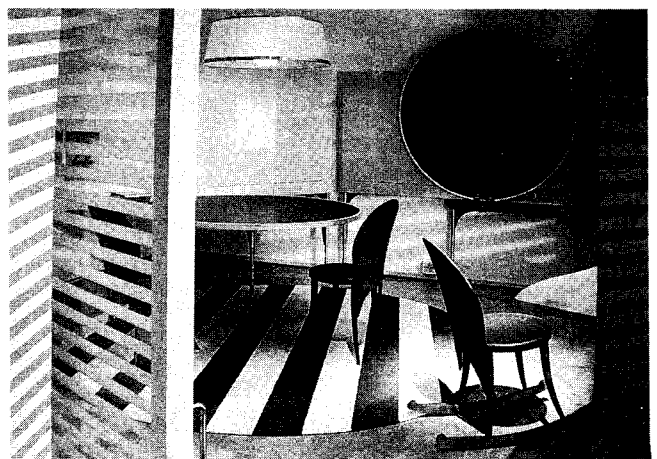
둘째 :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구의 크기나 형태, 사용방법에 대한 선입견의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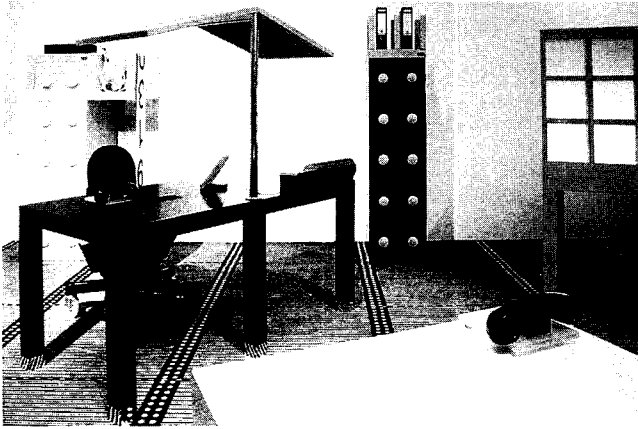
아마 사무용 가구 만큼 사전에 결정된 치수, 높이, 기능적 상세 같은 억제에 의해 동결된 또는 다른 분야는 없을 것이다. 예로 사무원용 기구와 중역용 책상은 크기와 질에 그 차이가 있다. 그러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대에서 큰 책상은 공간만 차지할 뿐이다. 또 접는 의자의 제안은 공간을 절약하지는 의도이다. 그러나 접어서 벽에 걸어 놓고 필요한 때에 내려 사용한다면 공간의 차지도 전혀 없지 않은가. 이제까지의 표준 치수 개념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시대에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새로운 모험과 도전이 필요하다. 기능적 수행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실용적 융통성이 추구되어야 하며 항상 컨템퍼러리 해야 한다.

셋째 : 건축적 시선에 의해 설계되어지고 개선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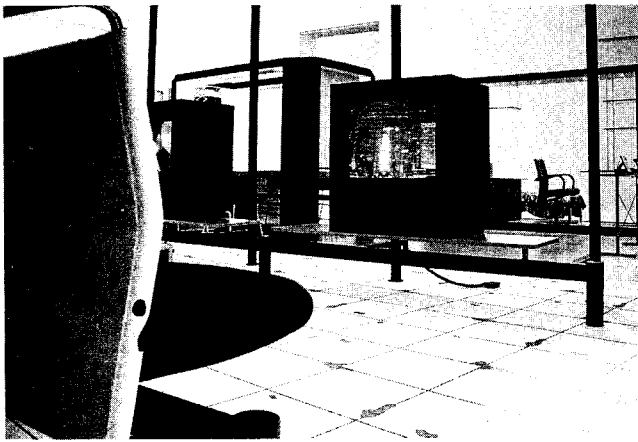
오피스의 환경은 지금까지 가구의 배치에 의해 주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인간의 소구 차원에서 볼 때 단순한 가구설비에 의해서 뿐만아니라 건축 공간으로 다루어져서 그 환경의 질을 높여야 하며 더 나아가는 사회 공간적 차원에서 환경과 인간, 텍크놀러지, 문화를 혼합한 문자 그대로의 새로운 총체적인 질(total quality)을 가진 환경으로서 성취되어야 한다.



<그림 12> 1993년 비트라 미술관 주최'Citizen Office'전사에서 Michele De Lucchi의 작품.공간을 줄이기 위해 벽에 붙여 걸어놓은 미팅용 테이블이 인상적이다.



〈그림 13〉 1993년 비트라 미술관 주최 'Citizen Office' 전시에서 Ettore sottsass의 작품. 사무실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 있다.



〈그림 14〉 1993년 비트라 미술관 주최 'Citizen Office' 전시에서 Andrea Branzi의 작품

#### 참고문헌

1. Isao Hosoe, Play Offic, GC Press '92
2. Edward T.Hall, Invisible Dimansion, 세진사
3. Alvin Tofler, The Third Wave, 한국경제신문사
4. Michele De Lucchi, Serious space, Interni '93
5. Luigi V. Mangano, Nuove Strategie Nell' Ufficio, Interni '93
6. Andrea Branzi, From Environmental Quality To Total Quality
7. Andrea Branzi, Ufficio Scomparsa E Permanenza, Ufficiostile '91
8. Stefana Cascian, Dove Va L'ufficio, Ufficiostile '91
9. Renata Sias, Nomadism In the Office, Domus Academy '92
10. Renata Sias, Ambiente Ufficio, Domus Academy '92
11. Andrea Branzi, Hybrid office, Domus Academy'92
12. Enrico Morteo, Mobile da ufficio relay, Herman miller

〈접수 : 1995. 3. 14〉